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4.1.(수) 11:00 < 4.2.(목) 조간 > 배포 2026. 4. 1.(수)

산업현장 양자 수요기술 발굴 본격화

- K-양자산업연합, 제1차 포럼 열고 업종별 활용 가능성과 정책과제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 1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6년 제1차 K-양자산업연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양자기술 수요기업과 관련 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양자기술의 업종별 활용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최근 양자기술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2029년 전후 본격적인 상용화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산업 혁신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업종별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자기술의 산업부문 핵심 활용유형을 복잡한 물류·공정 경로를 찾는 '조합 최적화', 신소재 개발을 위한 '분자·물성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분하고, 탄소배출 없는 고강도·초경량 철강소재 설계, 고에너지밀도·장수명 배터리 소재 탐색 등 업종별 산업 난제의 돌파구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화학·방산·물류 등 주요 업종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산업부는 앞으로 K-양자산업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망 과제는 실증과 후속 연구개발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별 활용 사례를 축적하고, 기업이 양자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양자기술의 산업화는 기술 자체의 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양자기술의 수요 발굴과 실증 기반 마련을 통해 기업이 양자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자기술이 AI와 함께 우리 산업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530)
		담당자	사무관	성하진 (044-203-45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26년 제1차 K-양자산업연합 포럼 개요**

□ 배경 및 목적

○ 「K-양자산업연합」 출범 後, 양자기술 산업 Use-Case 발굴·확산을 위한 국내 양자기술 수요기업의 니즈 파악 및 산업 생태계 진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 4. 1.(수) 14:00 /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3층)

○ **(참석자)** 산업성장실장, K-양자산업연합 참여기관, 국내 양자기술 수요기업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양자기술 산업활용 촉진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 양자 활용 수요 분석 및 필요한 정부정책 논의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14:05	05′	**환영사**	산업성장실장
14:05~14:20	15′	**기조연설**	서울대 김태현 교수
14:20~14:35	15′	**산업별 양자컴퓨터 활용 로드맵 발표**	KETI 김병수 센터장
14:35~14:50	15′	**양자컴퓨팅 활용지원 사업 성과발표**	연세대 김기온 교수
14:50~15:05	15′	**수요기업의 양자기술 활용사례**	포스코홀딩스 허창훈 리더
15:05~15:35	30′	**패널토론** - **기업별 양자기술 활용** 계획 소개 - 산업 양자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등	(좌장) 서울대 김태현 교수 (패널) ❶LG전자 김성혁 상무 ❷CJ대한통운 박대원 상무 ❸LIG넥스원 이성헌 수석 ❹포항산업과학연 황혁기 수석
15:35~16:00	25′	**현장 질의응답 및 폐회**	